**일본학(日本學)의 첫 발걸음**

201814003 IT융합자율학부 김은정

**1장, 2장 요약**

책의 가장 첫 장을 펼치면 나오는 것은 바로 일본학의 정의이다. 일본학(日本學)이란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일본학을 우리의 일본에 대한 관심이 지적 체계를 갖출 때를 의미한다고 쓰여 있다. 실로 한국인에게 일본인이란 지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을 대할 때 역사의 일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는 일본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장에서 대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일본학이라고 불리게 된 계기에 있다. 어떤 지역이든 그 지역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지역론적 태도에서 지역연구적 태도로 바뀌고 그리고 지역의 차별성 그리고 특수성과 보편성을 파악하는 지역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부분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일본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도 한데 위에서 짚었듯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반일감정이 자연스레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종과 문화 언어적 지리적인 면에서 가깝지만, 나라를 빼앗겼던 울분과 또한 직접적으로 경험한 불행한 역사들이 그들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나는 교수님께서 첫 수업에서 말해주신 말들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잊으면 안되는 것은 맞으나 그것으로 인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안된다는 부분이었다. 또한 2장 일본 열도에 관해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왜 반일 감정을 교육시키느냐 라는 말을 하면 그것은 반일 감정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공부시키는 과정이고 그로 인해 중간에 드는 반일 감정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말 또한 감명 깊었다. 나 또한 그들에 대해 꽤 많은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고 그들 전부가 과거의 사람들과 같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색안경을 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우선 감상에 앞서 2장에 대해 마저 설명을 하자면 2장은 일본 열도와 일본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 섬나라로 4개의 주요 섬이 존재한다. 그들의 인구는 45프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와도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의 본토는 꽤 큰 편인데 남북한보다도 큰 면적이다. 그들의 기후는 온대, 해양성, 대륙성기후를 모두 가지고 있다. 특히 여름에는 습기가 많아 그늘에 있어도 후덥지근 하다고 한다. 겨울에는 삿포로 지역이 북쪽으로 더 올라가 있는 지형이기에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대륙성 기후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지진, 태풍의 고리에 존재하고 있어 태풍과 해일, 지진 등 자연재해를 많이 겪곤 하는데 자연재해를 이기려 들기 보다는 파도에 몸을 맡겨 넘어가듯 한다는 말도 존재한다고 한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계열은 민족이기도 하지만 실상 민족의 형성에는 여러가지 설이 존재한다고 한다. 북방계설, 남방계설, 기마민족설 등등 다양하다. 그들과 우리 또한 중국 이 동쪽나라들을 합쳐 가장 큰 공통점은 몽고반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인종은 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더 이어 그들은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한자를 사용하는데 히라가나는 한자를 사용하다가 변형했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한 기원을 알 수 없으며 그들의 고유 언어이기도 하다. 조선어, 아이누어, 오키나와 언어 정도가 공존하고 있으며 꽤 고립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 히라가나를 알고 있으면 일본 내에 거주하면서 사용하기 좋은 언어이나 실상 일본을 제외한 해외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만을 놓고 본다면 꽤 통용되는 언어라고 볼 수 있다.

**감상평**

이렇게 1장과 2장을 전부 바라봤을 때 일본은 내가 알았던 것 보다도 훨씬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고 볼 수 있었다. 단순한 아픈 역사를 지니게 한 잘못만을 지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봐야 경쟁국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배울 점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는 역사에 대해 잊지 말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마니아 적으로 깊게 파고들 필요도 있다. 역사의 70년의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직접 발로 우리나라를 전부 훑는 것과 같은 힘듦이 있지만 그만큼의 얻음 또한 있는 것이기에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학, 일본의 생활과 흐름 그리고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막상 첫 시작을 직접 결정하고 따르기로 했지만 수십 번 이것이 맞나 싶어 고민도 해야할 것이다. 특히 이번 겨울 2월에 직접 오사카에 갔을 때 욱일기를 든 나이드신 일본인이 다케시마 즉 독도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들의 정당성을 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꽤 충격을 받았기도 했기에 그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일본인들 전부가 그들이 외치는 모습에는 관심도 없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기도 한다는 오사카에서 그런 모습은 TV로만 보던 것과 생경히 느끼는 것은 달랐다. 그럼에도 그리 나빴던 부분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과 또 환경들이 우리나라와 사뭇 많은 부분이 다르기도 했고 또 같은 부분을 봄으로써 근접한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도 하였다. 이렇듯 직접 피부로 와닿기 전까지 간접 경험만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서투른 일반화이다. 그들의 모습을 톺아보고 그들을 돌아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이번 일본의 이해 수업에 다시금 집중을 요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다시 방문하여 시간을 들여 많은 부분들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